

"여성의 무관심을 극복하여
24일 총선에서 민자당을 낙선시키고
민주정부 수립하여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참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무능정권, 비리정권, 부패정권, 6공6신의 정권에 맞서 여성해방의 그날 까지
함께 일떠서고자 하는 우리 것 찾는 제 8대 총여학생회

성·폭·력·없·는·세·상·을·우·리·의·깨·끗·한·한·표·로·안·아·오·자 !

지난 1월 27일 일어났던 김보은 김진관 사건을 알고 있습니까?

의붓아버지(김영오)로 부터 9살때부터 12년간 거의 매일 성폭행을 당해 온 김보은씨가 그 악몽의 나날을 견딜 수 없어 결국 살인을 해야했던 사건은 김부남씨 사건 이후로 우리를 경악케한다. 충주 지방검찰청 사무과장이라는 직업에 맞지 않게 9살인 딸을 성욕구로 삼고 12살때 초경이 나오자 어른이 됐다며 기뻐하면서 매일 성관계를 요구하고 심지어 목욕할때도 꼭 보은이가 씻겨 줘야만 했다. 보은이와 엄마가 도망가려고 하면 전처의 자식과 친정식구들까지도 죽여버리겠다고 항상 칼과 쥐약을 준비해 두며 엄마와 딸을 번갈아 성폭행 하였다. 신고하고 싶어도 아씨의 검찰청의 지위때문에 신고도 못하고 12년간 계속 성적 대상으로 지내야 했던 것이다.

보은이가 웃지않으면 다른 남자 생각한다고 구타했으며 음란 비디오와 똑같은 성적 행위를 요구했고 아빠 앞에서는 늘상 웃어야 했으며 학교 친구들과도 편지도 주고 받지 못했다. 휴일에는 주차장에 걸쳐서 육체적 고통을 당해야 했으며 아빠 때문에 매독에 걸리기도 했다. 12년동안 거의 매일 같이 자행되는 성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과연 인간다운 삶을 생각할 수 있었겠는가? 결국 김보은은 자신의 자유로운 삶을 위해 아빠를 죽일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강간, 강간미수, 성적희롱, 성기노출, 어린이 추행, 음란전화 등도 모든 성폭력의 행위이다. 그럼에도 강간사건에 있어서는 성폭력의 피해자인 여성이 순결을 잃었느냐 아니냐에 관심을 집중하며 단순히 여성의 옷차림이나 남성의 성호기심으로 일축해 버리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이다.

사랑의 고귀성과 순결성이 소비적이고 향락적이며 무분별한 관계로 인해 제 1의 낙태국가로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 여성의 몸을 성적도구로 전락시켜버린 장시간 노동과 직장에서의 비인

격적인 대우로 인한 스트레스를 향락적으로 풀도록 조장하는 향락산업이 원인일것이며 이러한 것으로 돈을버는 재벌들이 원인일 것이다.

둘째, 정권의 무관심이다. 국가 기관인 검찰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국민에게 올바른 지도를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위를 미끼로 거침없이 비윤리적 행위를 자행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특히 민자당 정치권이라 인간매매와 청소년 범죄는 끝도 없으며 아무런 대비방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보은씨 사건을 단순히 성희롱이라는 것으로 사건을 무마시키는 법원에서, 그리고 민자당과 노태우 정권에게 단호히 심판을 내려야 할 것이다.

세째, 양키문화의 침투로 인해 수많은 매춘행위와 성병들이 유행하고 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게하는 노태우 정권과 맞서서, 자주화를 이루어 내야하며 민주정부 수립으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성폭력 없는 사회를 보장해 주지 못하면서 자신의 안락을 위해 인간됨을 쓰는 민자당과 노태우에게 과감한 심판을 내리자.

24일은 총선의 날이다. 정권자들이 유포시킨 정치적 허무주의를 과감히 깨고 투표참가로 민주국회 이룩하여 독재가 판치며, 성 퇴폐 문화가 판치는 세상을 다시는 만들지 맙시다.

우리의 100%의 총선참여로, "여성은 투표하지 않으니 선거때는 밤이다"라는 명제를 과감히 깨고 너도나도 손잡고 투표하여 민자당 낙선 민주정부 수립으로 모두 웃으며 민주국회 만세, 여성의 성폭력 해방만세, 인간해방 만만세를 외쳐봅시다.

민주남성, 자주여성 학우여!

다시는 다시는 결코 제 2.3의 김보은을 만들지 말고 우리힘으로 총선에서 민자당을 과감히 심판합시다.

선 거 참 여 총 선 승 리! 민 자 당 낙 선 총 선 승 리! 민 주 후 보 당 선 총 선 승 리! 일 치 단 결 총 선 승 리!



성폭행, 이중(二重)의 강간

* 이렇게 요구하고 행동합시다!!

- 민자당의 반인륜적, 반도덕적, 반여성적 본질을 폭로하고 인간답게 살기를 염원하는 온 국민의 힘으로 보은이, 진관이의 무죄를 선언합시다!!
- 제 2.3의 김영오는 얼마든지 우리곁에 있습니다. 청년학생부터 성차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인식합시다!!
- 24일은 총선거일입니다. 투표에 참가하여 성폭력을 조장하는 민자당에게 패배의 쓴잔을 마시게 합시다!!

구 호

- * 성폭력 외면하는 민자당을 심판하자!!
- * 매매춘 기생관광 조장하는 민자당을 심판하자!!
- * 선거에 투표하고 민자당을 낙선시켜 성폭력 없는 세상 이룩하자!!

총 선 승 리 민주국회 광채! 총 선 승 리 민주정부 수립! 총 선 승 리 향락 참자유 세상! 총 선 승 리 조국통일!

김보은, 김진관 첫 심리 공판 일부

- 1992년 3월 13일 충주지원 법정에서 -

판: 성폭행을 직접 당했나?/ (방청석 야유)

판: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국민학교 2학년때부터 92년 1월 13일까지

변: '검찰이 얼마나 무서운것인가 보여주겠다'고 항상 얘기했죠?/에

* : 칼과 권약을 준비해 놓고 정식에게 항상 가져오게 하였죠?/에

* : 평소 자식들 보는 앞에서 성교를 가졌죠?/에

* : 국민학교 5학년때 초경을 하였는데 김영오는 이제 어른이 됐다고 기뻐했죠?/에

* : 5학년때 첫 월경이 시작될때 부터 직접적인 성관계를 요구했죠?/에

* : 그이후 거의 날마다 계속됐죠?/에

* : 5학년때 가까이 오지 않는다고 행패부리면서부터 가족모두가 알게 되었죠?/에

* : 가정교사 김모양을 성폭행하고 반항하고 도망가려 한다고 담배불로 지저 상처를 입혔죠?/에

* : '이혼하자' 할 때 보은과 엄마와 정식 윤식 그리고 친정식구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하였죠?/에

* : 수사도중 압수한 음란 비디오를 보며 그렇게 하기를 요구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요구했죠?/에

* : 피고와 어머니를 번갈아 성폭행하고 매독에 걸린적 있죠?/에

* : 그동안 김영오의 행동을 보아 충분히 살인을 하고도 남을 인간이기에 가족모두가 살리려고 피고는 엄마와 자신을 희생시키며 살아왔죠?/에

* : 정식과 윤식도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복수심으로 살았죠?/에

* : 9살때 가슴이 없다고 하자 어리니까 그렇다고 하자 따귀를 때리며 너가 왜 어리냐고 하였죠? 에

* : 9살때 자신의 성기가 질속에 들어가지 않자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죠? 에

* : 김영오는 자신의 행동이 난폭하고 짐승같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가족이나 제 3자에게 발설할까봐 통제하고 감시했으며 다른 가족이 집에 오지도 못하게 하였죠?/에

* : 집에서 잠을 잘 때 침대위에서 김영오와 보은이 자고 엄마는 바닥에서 잠을 잤죠?/에

* : 김영오는 목욕할때 보은이 씻겨주지않으면 술을먹고 행패를 부렸죠?/에

* : 목욕중에도 성관계를 요구했죠?/에

* : 김영오는 보은이 성병중에도 관계를 요구했죠? 물론 생리중에도 막무가내였죠?/에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인간 경시풍조 남성중심의 성문화가 빚어낸 결과이며 여성의 희생적이고 남성의 성적 대상으로 취급되는 불평되는 불평등한 사회의 필연적인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우리모두는 성폭력 범죄를 단호히 처벌하기 위한 법적 제도와 대책이 필요하며 미-노정권이 계속되는한 민자당이 계속있는 한 이것은 조망에 그칠것이 이미 자명한바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 민자당을 낙선시키고 민주정부를 수립하여 인간답게 살고싶음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